

메쉬까 예술품에 나타난 미학*

이 중 득

덕성여자대학교

이중득(2019), 「메쉬까 예술품에 나타난 미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75-118.

초 록 메쉬까의 다양한 예술품에 나타난 특징과 그 미학을 연구하는 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축물과 석조 유물을 비롯해, 2차 아우디엔씨아 시기(1531-1535)부터 잠시 제작된 고문서 그림을 연대기와 고문서의 기록과 비교했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의 주류를 형성했던 신화·종교적인 시각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역사·정치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했다.

메쉬까 예술품은, 아스카보살고 연합체와의 전쟁(1428년)을 승리로 이끈 신흥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발전했다. 이주 집단의 후손이었던 신흥 정치세력은, 신화와 역사 왜곡을 통해 신화·정치적 정통성을 새롭게 정립했고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흔적은 대신전을 비롯해 다양한 석조 유물과 고문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5태양신화와 메쉬까의 우주관은, 많은 예술품이 창조되는 내적 원리로 작동하며 페노츠띠틀란의 신화·종교·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메쉬까의 예술품은 이런 내적 가치의 재현과 환기에 충실하며, 그 특성을 함축해 내는 형태와 방식으로 발전했다.

핵심어 페노츠띠틀란, 돌떼까, 메쉬까 예술품, 메쉬까 예술의 미학

* 본 연구는 2018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는 글

페노츠피플란에서 발견된 건축물이나 유물은 도시국가의 명성에 비해 많지는 않다. 정복(1521년) 당시에 도시 자체가 거의 초토화되었고, 식민 초기에는 새로운 도시 건설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거나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전의 초기 터와 중축된 기저 부분을 비롯해 석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유물들이 적지 않게 살아남았다. 그리고 2차 아우디엔씨아 시기(1531-1535)부터 잠시 제작된 고문서 그림 또한 현재까지도 꽤나 전해진다. 이렇게 남겨진 예술품들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 평가 또한 세대를 달리하며 변화했다. 하지만 정복 시기는 물론이고, 식민시대 내내 야만스럽고 악마적이라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사실, 멕시코 고고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레온 이 가마(Antonio de León y Gama, 1735-1802)조차도 이런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 예로, 멕시코 대광장에서 ‘꼬아틀리꾸에 석상’과 ‘태양의 돌’이 발견(1790년)되었을 때에 레온 이 가마는 원주민들이 거짓 신들에게 우상숭배를 했었으며 태양신화는 우스꽝스런 이야기라고 평가했다(1832, 89-94). 물론, 발견된 2개 석재 유물을 고문서와 연대기를 바탕으로 학문적인 시각에서 체계 있게 분석한 것은 근대적이었지만 기독교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정복 이전과 식민 초기의 원주민 유산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비교적 예술 자체로 평가하기 시작한 연구자는 알폰소 까소(Alfonso Caso, 1896-1970)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원주민들의 우주관과 태양신화는 생소했고 괴기스러웠다. 특히, 인신공양과 관련된 많은 유물은 원주민 문명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신화·종교적인 특징을 부각시켰다. 이런 시각은 현재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스토리(Pasztory)처럼 이러한 유산을 예술품의 다양한 형식으로 간주하고(1995, 459-465), 상호비교하며 형태와 문양 등에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각 예술품의 세세한 문양에 집중

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특성에 매몰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역사적인 틀에서 벗어난 순수 미학 연구는 고고학계의 거부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예로, 1978년부터 페노츠피틀란 발굴을 지휘했던 마토스(Matos)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미학의 이론적인 틀에 간혀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1999, 125).

그런데 현재까지 남겨진 건축물과 석조 유물 그리고 고문서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그 관계가 모호하고 무질서해 유기성을 찾기 어렵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시대를 달리하는 뜰때까 전통의 신화와 신들이 메쉬까의 전통인 것처럼 생산되어 소비되었고, 메쉬까 신들의 특성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노츠피틀란의 유산을 단순히 메쉬까의 독립적인 예술품으로 판단하거나 뜰때까 전통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뜰때까에서 치치메까를 거쳐 메쉬까에 이르는 역사를 이해해야만 한다. 사실, 톨라 멸망(1000년 전후) 이후에 페노츠피틀란이 패권도시국가로 변신할 때(1428년)까지 사이의 기간이 400여년에 이르고, 두 도시국가는 존재 시기가 달라 직접적인 접촉이나 문화 교류가 없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메쉬까 예술품의 제작을 기획하고 생산과 소비를 조율한 주체를 규명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대신전과 석재 재질의 유물은 도시국가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기획되고 통제되었기에 그 단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겐드로프(Gendrop)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예술품들에는 메쉬까가 추구했던 정치·종교·신화 이데올로기가 다양한 형태로 함축되어 있다(2000, 185).

이런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건축물과 석조 유물을 비롯해 다양한 고문서의 그림을 비교·분석했다. 그리고 각 예술품에 내재한 미적 가치가 어떤 원리체계에 의해 다른 예술품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 의미를 형성하는지 규명했다. 사실 예술품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다른 예술품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상실해 그 실체가 모호해지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꼬올샤우끼 원형석판’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메쉬카의 주요 신이지만, 우이쉴로보츠틀리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주 과정의 역사를 비롯해 톨떼카 신화체계와도 연계된 유물이다. 마지막으로 메쉬카 예술품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내적 원리가 실체를 드러내는 미학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그 특징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발굴된 예술품들(건축물, 유물, 벽화, 고문서 그림 등)의 분석은 다양한 고문서와 연대기 기록과 비교하며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신화·종교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된 기존 연구에서 상당 부분 탈피해, 예술품의 생산과 소비를 기획하고 조율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시각에서 접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톨떼카 전통과 뒤섞여 무질서하고 모호했던 메쉬카의 역사와 신화체계가 재정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의문시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했던 사료들 또한 메쉬카의 주요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재정리되는 결과를 낳았다.¹⁾

II. 신흥 정치세력의 등장

현재까지 발굴된 대신전의 건축물과 석조 유물 그리고 고문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림은, 톨떼카의 전통과 뒤섞여 혼돈스럽고 그 유기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먼저, 시기적인 측면에서 대신전의 초기 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축물과 석조 유물은 이쓰꼬아틀 왕(4대)부터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9대)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메쉬카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진 ‘태양의 돌’은 아샤야까틀 왕 시기인 1479년에 완성되었고, ‘성전의 신전(Teocalli de la guerra sagrada)’은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 시기인 1507년에 제작되었다.

1) 논문의 지면 수를 고려해, 다양한 예술품의 사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나 신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나 출처는 충분히 제공했다.

두 번째 특징은, 삼각동맹(1431년) 이전 시기의 것들에 비해 건축물과 석조 유물의 규모가 커지고 예술적 정교함이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는, 아스카쁘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승리(1428년)한 이후에 패권도시국가로 변모한 페노츠피틀란이 멕시코 분지 내외의 많은 도시국가들을 예속시키며 거대 연합체를 형성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페노츠피틀란을 이끌었던 정치세력은 누구인가? 그 실마리는 페노츠피틀란 건국신화가 부조된 ‘성전의 신전’에서 찾을 수 있다. 꼬뽈의 입에서 나온 선인장 열매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부조(<그림 1>)는, 언뜻 보면 메쉬까가 도시국가(페노츠피틀란)를 건립(1325년)했다는 사실만을 보여



<그림 1>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조에는 이주 과정에 발생한 신화·역사적인 사건들(말리날꼬, 차뽈테뽈)이 함축되어 있다. 말리날꼬 사건은 누이(Malinalxoch)와 갈등을 빚은 우이쉴로보츠틀리가 누이를 버려두고 몰래 떠난 사건이다. 차뽈테뽈 사건은, 말리날쏘츠의 아들(Copil)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외삼촌(우이쉴로보츠틀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 왔다가 인신공양이 된 사건이다.²⁾ 두 사건은 이주 과정에 발생한 특정 사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이지만, 그 내용이 상징적이며 신화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건의 중심에 꾸아우틀로게쓰끼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꾸아우틀로게쓰끼는 당시 우이쉴로보츠틀리를 모셨던 깔뽈리 신관(4명) 중 한명이며, 그의 가문은 이주 초기부터 우이쉴로보츠틀리를 섬긴 깔뽈리 신관 가문이었다. 말리날꼬 사건의 경우, 꾸아우틀로게쓰끼는 우이쉴로

2) 논문에 인용된 다양한 사진은 모두 “yahoo México(<https://español.yahoo.com/>)”에서 찾아 게재했다. 먼저, ‘찾기 난’에 필요한 주제나 이름을 쓰고 클릭해 나온 결과물에서, 다시 ‘이미지’ 항목을 클릭해 나온 사진 중에서 선별했다. 그러나 그 출처가 지나치게 길어 참고문헌에 일일이 인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 출처의 개요를 밝힌다.

뽀츠틀리의 명령에 따라 말리날소츠와 그 추종자들을 버려두고서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몰래 떠났다(Durán 1995a, 72-74; Alvarado 1992, 28-31). 차뽀뽀뽀 사건에서는 모친의 복수를 위해 메쉬까를 찾아 온 꼬뽀을, 우이쉴로뽀츠틀리의 명령에 따라 생포하고 심장을 꺼내 갈대 늪지대로 던진 장본인이었다(Durán 1995a, 80-82; Alvarado 1992, 41-43; Tena(ed.) 2004, 59-61; Chimalpain 1991, 131). 그리고 꿀우아칸 왕의 딸을 인신공양한 피사뽀 사건 주역이기도 했다(Alvarado 1992, 55). 더 나아가 페노츠띠플란 건국에서도 이 신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꼬뽀의 심장이 떨어진 돌 위에 자란 선인장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약속의 땅을 발견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Durán 1995a, 87-89; Alvarado 1992, 62-68).

여기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혈통 관계이다. 이 신관이 차뽀뽀 사건 이후에 꼬뽀의 딸(Azcatl Xochtzin)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45; Tena(ed.) 2004, 59-60; Chimalpain 1991, 131). 따라서 신관과 꼬뽀의 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우이쉴로뽀츠틀리와 신화적인 혈통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이쉴리우이플 왕(2대)이 아까마뽀츠틀리 왕(1대)과 신관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신관의 딸이 우이쉴로뽀츠틀리의 혈통이 섞인 신화적인 딸인지는 사료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먼저 페노츠띠플란 왕들의 모계 혈통을 조사해 보면, 페빠네까 혈통인 치말뽀뽀까 왕(3대)과 이쓰꼬아플 왕(4대)을 제외하고, 우이쉴리우이플 왕(2대)을 비롯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5대)과 이후의 모든 왕들이 꾸아우플로께쓰끼 혈통의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이쓰꼬아플 왕 시기부터 씨우아꼬아플을 역임하며 페노츠띠플란을 거대 연합체의 패권도시국가로 만든 플라까엘렐도 이 혈통이었다. 무엇보다도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3명(이쓰꼬아플,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플라까엘렐) 중 2명이 이 신관의 후손들이었다. 다시 말해, 꾸아우플로께쓰끼 혈통의 후손들이 전쟁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중심 정치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페노츠띠플란 건국신화의 부조물은 단순히 도시국

가의 건립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에는 꾸아우틀로쎄쓰끼 가문 중심으로 메쉬까의 이주 역사를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신화·정치적인 정통성을 우이쎄로보츠틀리의 혈통을 앞세워 널리 알리는 정치 홍보물이다. 동시에 다양한 깔빨리와 종족 간에 이질적이었던 역사를 하나로 통일시킨 새로운 역사 서이기도 하다. 사실, 이쓰꼬아틀 왕 초기까지도 페노츠미틀란의 중앙조직에는 이주 집단 이외에 꼴우아와 페빠네까 세력이 혼재해 있었다.

1. 신화·역사 왜곡

아스까쁘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승리(1428년)한 이후, 이쓰꼬아틀 왕 시기에 플라카엘렐은 ‘분서사건’을 일으켜 다양한 역사 고문서(치치메까, 톨떼까, 아꼴우아, 페빠네까)를 불태웠다(León-Portilla 1997, 244). 그리고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시기에는 ‘아스틀란 원정대 사건’을 일으켰다. 주 목적은, 초기 이주 집단의 후손들 중심으로 메쉬까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까마베츠틀리 왕부터 모계로 섞인 꼴우아 혈통을 희석하고, 치말쁘빠까 왕 시기에 활성화된 페빠네까 세력을 배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가 왕(재위 기간: 1440-1469)으로 즉위하면서부터였다. 페빠네까 모계 혈통이 섞인 이쓰꼬아틀 왕 시기는 멕시코 분지 내의 잔존 페빠네까 도시국가와 남부 지역의 전통 도시국가들을 예측시키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흥 정치세력은 왕권과 중앙조직의 체계모니를 장악했지만, 왕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4개 지역 깔빨리와와 관계에서도 신화·정치적인 정통성이 미약했다. 더 나아가 여러 종족과 깔빨리로 구성된 페노츠미틀란의 역사를 일원화하며 왕권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성전의 신전’에 새겨진 페노츠미틀란 건국신화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메쉬까의 기원은 식민 초기에 제작된 『보뚜리니 고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 따르면, 호수 한 중간의 섬(아스틀란)에 살았던

아스떼카 사람들이 1111년(1-pedernal)에 섬에서 카누를 타고 나왔다. 그리고 폴우아칸에 도착해 우이쉴로쁘츠플리 제단을 꾸몄다. 이후에는 4명의 신관들이 무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났다.



〈그림 2〉

이런 형태의 이주 역사 서술은 별 의심 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신화와 역사적으로 매우 모순적인 것이 발견된다. 방패 문장을 갖고 있는 치말마와 남편(문장이 없다)으로 여겨지는 므스꼬아틀이 함께 아스틀란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치말마와 므스꼬아틀은 뜰때까 신화에 등장하는 꾀살꼬아틀의 모친과 부친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메쉬카의 초기 역사에 왜 생뚱맞게 등장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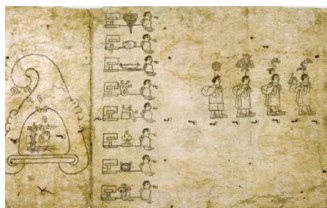
〈그림 3〉

그리고 떼소소목의 기록에 따르면, 폴우아칸에서 출발한 이후에도 치말마와 므스꼬아틀은 우이쉴로쁘츠플리를 섬기는 신관으로 계속 등장한다(Alvarado 1992, 18-19). 반면에 『보뚜리니 고문서』에서는 치말마만 칼뿔리 신관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으로 처음 얼굴을 드러낸 우이쉴로쁘츠플리가 이주 무리에 게 활과 화살 그리고 그물을 주고, 아스떼카에서 메쉬카로 개명시킨 사건(<그림 3>) 이후에 치말마는 고문서에서 사라진다.

반면에, 뜰때까의 신이며 역사적인 부부(치말마, 므스꼬아틀)를 메쉬카와 신화·혈통적으로 연계시킨 사료는 모폴리니아의 기록이 유일하다. 이 기록에 따르면, 치꼬모스톡의 왕(므스꼬아틀)은 두 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다. 첫 번째 부인과는 7명의 아들을 두었고, 두 번째 부인(치말마) 사이에서는 꾀살꼬아틀이 태어났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 둘째가 메쉬카의 시조인 떼노츠이다(Benavente 1994, 9-13). 이런 내용은, 치꼬모스톡이라는 신화적인

공간을 이용해 메쉬까의 근원을 계살꼬아들의 것과 동일시하려는 전통적인 서술 형태이다. 게다가 페노츠는 적자이고 계살꼬아들은 서자여서 메쉬까 혈통의 정통성이 더 강조되어 있다.

모톨리니아 기록의 경우에 메쉬까의 기원만을 파편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 맥락은 『보뚜리니 고문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메쉬까의 기원을 믹스꼬아틀에서 찾고, 역사 또한 뜰떼까에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두 기록



〈그림 4〉

모두 전통적인 신화 공간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종족들을 하나의 기원으로 묶는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서술 형태를 따르고 있다. 『보뚜리니 고문서』의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서술이 다른 신화적 공간(꼴우아칸)을 바탕으로 다시 등장한다. 멕시코 분지 내

외에 도시국가를 세웠던 8개 종족의 근원을 꼴우아칸을 통해 하나로 동일시했기 때문이다(<그림 4>). 이러한 서술 형태는, 두란의 기록과 『플라멜롤꼬 연대기』에서 나우아틀라까(nahuatlaca)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림 5〉

두란에 따르면, 멕시코 분지 내외에 살았던 종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미개하게 살았던 토착민은 치치메까이고, 이후에 들어와 도시국가를 세운 7개 종족들(mexica, xochimilca, chalca, tepaneca, culhua, tlaluicca, tlaxcalteca)은 나우아틀라까이다. 그리고 메쉬까를 제외한 6개 종족은 820년부터 아스플란의 치꼬모스톡(<그림 5>)에서 각기 다르게 출발했고, 멕시코 분지 내외에는 902년에 도착했다. 반면에, 가장 늦

게 출발한 메쉬까는 마지막으로 멕시코 분지에 들어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1995a, 61-68). 두란의 기록이 『보뚜리니 고문서』와 다른 점은, ‘치꼬모스톡’ 개념을 활용해 7개 종족의 기원을 동일시하고 메쉬까를 제외한 6개 종족의 역사를 간략히 언급한 것뿐이다.³⁾ 그리고 6개 종족이 멕시코 분지 내외에 도착한

시기를 톨라 멸망 시기와 엇비슷하게 맞추며 역사적인 구색을 갖추었다. 그런데 메쉬까의 이런 역사 서술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치치메까의 역사가 사라지거나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톨떼까(멸망 시기 기준)와 메쉬까(1428년 기준) 사이에는 400여년에 이르는 치치메까 시대가 있었다. 『치치메까 역사』에 따르면, 톨라가 멸망하고 5년이 지난 963년에 솔로틀(Xólotl)은 북쪽에서 이주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 그리고 떼나유히에 도시국가를 건립하며 치치메까 시대를 열었다. 이어 1011년에는 미초아칸 지역의 끝자락에 살았던 3개 종족들(떼빠네까, 오토미, 아폴우아)도 멕시코 분지 내외에 도착했다(Alva 1985b, 14-18). 이후 이들은 많은 도시국가를 건립하며 번성했고, 패권도시국가는 떼나유히와 떼소꼬꼬를 거쳐 아스까뽀쌀꼬로 이어졌다. 그리고 아스까뽀쌀꼬의 떼소소목 왕이 떼노츠띠플란 연합체와의 전쟁(1428년)에서 패하면서 치치메까 시대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나우아틀라까 개념의 역사는 메쉬까 이전에 도착했거나 살았던 종족들의 역사를 예비 역사로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쉬까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솔로틀 왕에서 아스까뽀쌀꼬의 떼소소목 왕까지의 400여년 역사를 단순화하고 주변화 시킨 것이었다. 이런 역사 서술의 완결편이 ‘성전의 신전’에 부조된 떼노츠띠플란 건국 신화이다.

게다가 『보뚜리니 고문서』에 따르면, 메쉬까가 차뽀떼뽀에 도착한 해는 1280년(9-tecpatl)이었다(1990, 1). 따라서 메쉬까는 멕시코 분지에 뒤늦게 등장했고, 치치메까 역사에 편입한 후발 이주 집단에 불과했다. 그리고 주변 도시국가들의 배척을 받으며 떠돌다 1325년에야 떼노츠띠플란에 정착했고, 1대 왕을 추대한 것은 1366년이었다. 게다가 초기에는 꿀우아칸, 그리고 떼노츠띠플란 정착 이후에는 아스까뽀쌀꼬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후 패권을 차지한 것은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예기치 않게 승리한 1428년이었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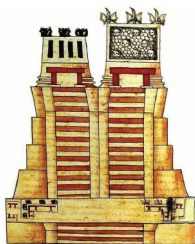
3) 치코모스톡 그림은 『톨떼까-치치메까 역사』를 비롯해, 여러 고문서(『꾸아우핀찬 지도』, 『바티칸 고문서』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 나우아틀라카 개념의 역사 서술은, 메쉬까의 이주 과정과 멕시코 분지 내에서의 초라한 역사를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예비단계로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후 90년도 채 안되어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멸망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떼노츠띠틀란 건국신화에도 톨떼까 전통과 이어 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페소소목의 기록에 따르면, 우이쉴로보츠틀리가 지정한 노란색의 반석에 꾸아우틀로게쓰키는 꼬뽈의 심장을 던졌다. 그런데 이 반석은 계살꼬아뜰이 톨라를 떠나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앉아 쉬었던 곳이었다(Alvarado 1992, 43). 특이한 것은 모친의 복수를 위해 찾아 온 꼬뽈이 반석으로 변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Alvarado 1992, 41). 다시 말해, 이 반석은 꼬뽈의 심장이 떨어진 곳이며 꼬뽈 자체이고, 톨라를 떠나는 계살꼬아뜰이 앉아 쉬었던 신화적인 반석이기도 하다. 혈통 내 갈등과 그 희생자를 톨떼까의 계살꼬아뜰과 이어 붙인 종교의례적인 서술 형태이다. 떼노츠띠틀란 또한 여러 사료에서 톨떼까 신화와 관련된 공간으로 서술된다. 『오뱅 고문서』에 따르면, 떼노츠띠틀란은 메쉬까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톨랄록이 거주했던 공간이었다(Navarrete 1998, 53). 그리고 톨떼까의 뒤를 이어 메쉬까가 새로운 시대를 열은 신화적인 공간이었다(Alvarado 1992, 62-66).

떼노츠띠틀란의 대신전 구조에서도 톨떼까 전통과 이어 붙여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대신전은 메쉬까의 우주관을 보여주거나 종교의식을 위한 의례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거대 연합체 패권도시국가로서 종교·정치

적인 우위를 확인하고, 그 위세를 널리 알리는 건축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에 발견된 신전 터의 대신전 정상에 있는 2개 신전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익스틀릴초치뜰 고문서』의 그림(<그림 6>)을 보면 남쪽에는 우이쉴로보츠틀리 신전이, 북쪽에는 톨랄록 신전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우이쉴로보츠틀리 신전의 경우에 우이쉴로보츠틀리가 정상에



<그림 6>



〈그림 7〉

있고, 신전 하단부 지면에는 꼬올샤우끼 원형석판이 놓여 있다(<그림 7>). 반면에, 틀랄록 신전 정상에는 틀랄록과 착물이 있고, 그 하단부에는 틀랄떼꾸틀리 상이 부조되어 있다. 그리고 대신전 하단부 전체를 뱀 형상

(coatepantli)의 조각물이 감싸고 있다.

피라미드 정상의 이원 구조를 두고 많은 연구자들은 혼돈스러워 했다. 틀떼까는 물론이고 떼오티우아칸 시기에도 있었던 틀랄록을 비롯해, 틀떼까의 틀랄떼꾸틀리가 후고전기 말기에 나타난 우이쉴로뽀츠틀리와 함께 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먼저 대신전의 이원 구조가, 솔로틀 왕이 1224년에 세운 도시국가(Tenayuca)의 피라미드 구조와 동일한 것에 착안해 그 원형을 떼나유까 신전에서 찾았다(García *et al.* 1990, 65). 게다가 신전 하단부를 감싸고 있는 뱀의 형상까지도 유사해 설득력이 높았다. 그리고 이원 구조의 신전은 틀랄록과 또나까떼꾸틀리를 모신 메스꼬꼬의 피라미드 구조와도 유사했다(Alva 1985a, 272-273). 이를 종합해, 여러 연구자는 떼노츠띠틀란 대신전의 이원 구조가 치치메카 신전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에, 대신전 정상에 있는 두 신은 많은 연구자가 이원성의 개념에서 접근했다. 부에노(Bueno)는 우이쉴로뽀츠틀리를 낮의 태양, 틀랄록은 밤의 태양으로 해석했다(2007, 250-251). 마포스의 경우에는 이원 구도(‘전쟁/ 물’, ‘공물/ 농업생산’)로 설명하며 떼노츠띠틀란의 정치·경제 구조와 연계시켰다(1999a,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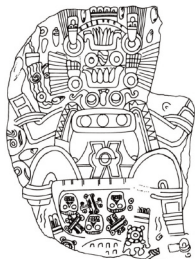
앞의 다양한 연구 결과는 대신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베스트하임(Westheim)이 지적했듯이, 메쉬까의 예술품에는 신화적인 개념이 매우 섬세하게 내재해 있다(1991, 59). 다시 말해, 신화 내용과 연계시켜 보면 의외의 새로운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틀랄록 신전을 보면, 이 신전은 또나까떼페틀(Tonacatépetl)이라 불렸고 께쌀꼬아틀이 옥수수를 발견한 장

소였다. 무엇보다도 제5태양신화 창조와 관련이 있는 신화적인 공간이었다. 「태양의 전설」에 따르면, 꾀살꼬아들이 지하로 내려가 물고기-인간 뼈를 구해왔고 씨우아꼬아들이 뼈를 갈았다. 이후에 꾀살꼬아들이 피를 뿌리고, 다른 5명의 신과 함께 의식을 치른 이후에 인간 부부(Oxomoco, Cipactónal)를 창조했다(Feliciano(ed.) 1992, 120-121). 그리고 틀랄록이 등장한다. 나나우아들이 토나까떼뻬틀을 방망이로 두들겨 옥수수를 털어내자, 이를 알고 비의 신들(tlaloques azules, tlaloques blancos, tlaloques amarillos, tlaloques rojos)이 나타나 모든 식량(다양한 색의 옥수수, 강낭콩, 색비름, 치아 등)을 훔쳐갔다(Feliciano(ed.) 1992, 121).

이처럼 틀랄록 신전은 우이쉴로쁘츠평리 신전과 함께 4방위의 기본 축(남-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제5태양신화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그 내용은 뜰때까 신화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료는 가리바이가 편집한 메쉬카 버전의 제5태양신화이다. 여기서 우이쉴로쁘츠평리는 토나까떼꾸플리(뜰때까의 주신)의 넷째 아들로 등장한다(Garibay(ed.) 1973, 23-24). 이 신화에서 우이쉴로쁘츠평리는 꾀살꼬아들의 형제로 등장하고, 둘이서 태양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기초 세상을 창조했다. 그 내용을 보면 틀랄록 신전의 구조와 함축된 의미가 드러난다. 먼저, 꾀살꼬아들과 우이쉴로쁘츠평리는 13층의 하늘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물의 신(남신, 여신)을 만들기 위해 뜰랄떼꾸플리와 그의 부인(Chalchiuhtlicue)을 창조했다. 그리고 토나까떼꾸플리의 4형제가 모여 큰 물고기(Cipactli)로 땅을 만들었다. 이 땅을 뜰



〈그림 8〉



〈그림 9〉

랄떼꾸플리라 한다(Garibay (ed.) 1973, 25-26). 이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천상 13계뿐만 아니라, 뜰랄록 신전 하단부에 뜰랄떼꾸플리가 부조되어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뜰랄떼꾸플리

는 물의 신(플랄록)을 만든 질료이며 동시에 지신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플랄록 신전은 톨떼카 신화체계에 끼워 맞추어진 제5태양신화 창조를 바탕으로 건축된 신전임이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제5태양의 ‘4-움직임’ 기호가 새겨져 있는 플랄록의 얼굴 상단(<그림 8>)과 플랄떼꾸플리의 가슴(<그림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메쉬가 예술품의 미적 가치는, 많은 경우 신화체계의 내적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예술품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플랄록 신전은 옆에 있는 우이쉴로쁘츠플리 신전과 제5태양신화를 매개로 연계된다.⁴⁾ 우이쉴로쁘츠플리 신전은 메쉬가를 톨떼카 이후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메쉬가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리고 대신전 정상에 있는 두 신(플랄록, 우이쉴로쁘츠플리)의 중요성은 메쉬가의 18개월 일반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플랄록을 기리는 달이 7개나 되고, 우이쉴로쁘츠플리를 기리는 달도 6개나 되기 때문이다 (Sahagún 1985, 98-155).

2. 톨떼카 신화의 등장 원인

마포스의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초기 신전 터는 2번째 증축 시기에 해당하며 1390년경에 건축되었다(1999a, 95-97). 이를 통해, 꾸아우틀로게쓰키 혈통이 섞인 우이쉴리우이틀 왕(2대) 시기부터 메쉬가가 우이쉴로쁘츠플리와 플랄록을 공식적으로 섬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메쉬가는 자신들의 근원을 께쌀꼬아틀과 동일시하고, 톨떼카의 태양신화 체계에 우이쉴로쁘츠플리를 영성하게 삼입해 넣었는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톨떼카와 메쉬가는 시기적으로 존재 시기가 달라 직접적인 접촉이나 문화 교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는 메쉬가

4) 우이쉴로쁘츠플리 신전의 구조와 의미는 IV장(메쉬가의 우주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톨떼카 전통과 문화를 수용했다는 사실에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레온 뽀르피야이다(1991, 28-32). 더 나아가 산따마리나(Santamarina)는 메쉬까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톨라에 있다고 주장했다(2011, 111). 부에노의 경우는, 떼오피우아칸이나 톨라가 남긴 신전에 메쉬까가 감명을 받았고 문화적인 열등감이나 비정통성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했다(2007, 245).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톨떼카로부터 신화체제와 신들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태양의 전설」에서 메쉬까가 톨떼카 신화체제를 차용하고, 더 나아가 양 종족의 역사를 이어붙인 연결고리(띠사뻬 사건)를 찾을 수 있다(Feliciano(ed.) 1992, 126). 이 사건은 메쉬까가 떼노츠뜨플란 정착 이전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꿀우아칸의 영지인 띠사뻬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 기록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두란의 기록에 따르면, 우이쉴로보츠플리 신전을 건축한 이후에 메쉬까는 꿀우아칸 왕(Achitometl)의 딸(Atotoztli)을 ‘메쉬까의 어머니’이며 ‘우이쉴로보츠플리의 부인’으로 섬기겠다고 데려와 인신공양을 했다. 메쉬까는 이 여성을 ‘불화의 여성’이라 불렀고, 인신공양 이후에는 우이쉴로보츠플리의 어머니이며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신의 어머니(Toci)로 숭배했다(Durán 1995a, 86-88). 떼소소목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띠사뻬에 정착한 지 25년이 되는 1323년에 발생했고, 우이쉴로보츠플리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인신공양된 여성은 우이쉴로보츠플리의 할머니(Yaocihuatl, 전쟁의 여신)와 동일시했다(Alvarado 1992, 54-56). 흥미롭게도 이 여성은 메쉬까의 18개월 일반력에서 11월의 수호신으로 등장하고, 모든 신의 어머니인 토씨(Toci)와 동일시된다(Sahagún 1985, 131-136).

각 사료에 등장하는 파편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료들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꿀우아칸 왕의 딸을 인신공양 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종교의례 행위를 통해 신화화하고, 톨떼카의 전통신 토씨를 우이쉴로보츠플리의 모

계로 이어붙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를 꼴우아(뜰떼까 포함)와 메쉬까 역사를 이어 붙이는 연결고리로 사용했다. 그러나 꼴우아간의 공주는 인신공양이 되었기 때문에 꼴우아 왕족 혈통이 메쉬까 이주 집단에 섞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쉬까가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우이쉴로쁘츄틀리의 부인이며 어머니이고 또씨로 추대되었다는 종교의례적인 상징성에 근거한다. 물론, 이런 내용은 아스뜰란 원정대 사건 이후에 재구성된 역사이다.

그러나 메쉬까는 꼴우아를 비롯해 뜰떼까와도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다. 당시는 왕의 혈통을 매우 중시했던 시기였다. 왕의 부계나 모계 혈통을 근거로 도시국가의 정통성이 부여되고, 더 나아가 패권도시국가의 자격이 결정되기도 했기 때문이다.⁵⁾ 실제로 떼노츠띠뜰란 왕들의 혈통은 꼴우아간 왕족을 매개로 뜰떼까의 왕족 혈통과도 닿아있다. 먼저, 꼴우아간과의 관계를 보면, 아까마뼈츄뜰리 왕(1대)은 메쉬까 부친과 꼴우아간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꼴우아 왕족 혈통이 모계 쪽으로 섞였다. 게다가 아까마뼈츄뜰리 왕의 왕비(Illancueytl)가 꼴우아간 왕의 딸이었다. 이를 근거로, 꼴우아간이 아스까뽀쌀꼬에 의해 멸망했을 때에 아까마뼈츄뜰리 왕은 꼴우아간 왕을 겸직했다(Alva 1985a, 322). 이때부터 메쉬까는 자신들을 꼴우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각동맹(1431년)을 맺으며 멕시코 분지 내외를 삼등분 할 때도 떼노츠띠뜰란의 왕은 꼴우아 떼꾸뜰리(culhua tecuhtli) 직위를 차지했다(Alva 1985b, 82-83).⁶⁾

5) 대표적인 경우가 아스까뽀쌀꼬의 떼소소목 왕이다. 떼소뜰랄라쥬 왕이 사망했을 때에 치치메카뜰 떼꾸뜰리(치치메까 시대의 패권도시국가 왕)는 떼소꼬꼬의 익스뜰릴 쓰치뜰 왕에게 계승되었다. 이에 반발해 떼소소목 왕은 자신도 혈통적으로 자격이 있다며 전쟁을 일으켜 치치메카뜰 떼꾸뜰리를 탈취했다. 그 근거는, 솔로뜰 왕의 딸(Cuetlaxachi)이 아스까뽀쌀꼬의 첫 번째 왕비였다는 데에 있었다(Alva 1985a, 424).

6) 삼각동맹 체결 시에 이쓰꼬아뜰 왕은 치치메카뜰 떼꾸뜰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통 계승자인 떼소꼬꼬의 네사우알꼬요뜰 왕이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근거가 없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삼각동맹의 구조이다. 보통은 3개 주요 종족을 대표해 3개 도시국가가 맺은 정치적인 동맹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삼각동맹의 체결은 치치메까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멕시코 분지 내외를 3등분하고, 3개 종족(꼴우아, 떼빠네까, 아

그렇다면 당시 메쉬까는 왜 꼰우아 전통에 의존했는가? 오랜 이주 과정으로 인해 내세울 만한 신화·종교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통은 생각한다. 이 또한 틀리지는 않지만 다른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 당시 페노츠뮈틀란은 순수하게 이주 집단만으로 구성된 도시국가가 아니었다. 꼰우아와 페빠네까 세력을 비롯해 다른 토착 집단과도 공존하는 상태였다. 특히, 아까마빠츠틀리를 왕으로 추대할 당시에는 꼰우아간의 정치적인 도움이 결정적이었고, 그 세력이 중앙조직과 4개 지역 깔빨리로 섞여 들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꼰우아간의 전통 문화가 페노츠뮈틀란에 이식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림 10〉

두 번째는, 꼰우아칸과 톨라(<그림 10>) 간의 혈통적인 관계이다. 꼰우아칸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톨라를 잇는 정통 도시국가로 생각을 했는가? 보통은 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일부 톨메까들이 꼰우아칸에 모여

들었고, 그 문화가 꼰우아칸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틀리지는 않지만, 톨라와 꼰우아칸 사이에도 혈통적인 관계가 있다. 그 내막은 「페스꼬꼬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톨라 멸망 이후에 많은 톨메까가 꼰우아칸에 모여 들었고, 꼰우아칸은 신흥 세력인 솔로틀 왕에게 예속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 꼰우아칸은 톨메까 시기에도 있었던 전통 도시국가였다. 그러자 솔로틀 왕은 아들(Nopaltzin)을 보내 꼰우아칸을 예속시켰고, 톨라의 마지막 왕(Topiltzin)의 손자(Achitómetl)를 새로운 왕으로 임명했다(Alva 1985a, 424). 따라서 왕의 혈통만 고려한다면, 꼰우아칸은 톨라를 잇는 정통 도시국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패권도시국가(떼나유파)에

꼰우아)의 떼꾸틀리를 동등한 위상으로 재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치메까 시대를 대표하는 패권도시국가 왕의 직위(치치메까틀 떼꾸틀리)가 사라졌다. 이후에 페노츠뮈틀란 왕의 명칭은 ‘우에이 톨라또아니’로 바뀌며 치치메까의 정치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예속된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우아칸 사람들은 자신들을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톨떼까의 후손이라 여겼고, 꼴우아칸 또한 톨라를 이은 정통 도시국가로 생각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메슈까가 톨떼까 전통을 받아들이게 된 혈통적인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게다가 톨라는 당시 치치메까 도시국가들에게 있어서 문화가 크게 융성했던 대표적인 전통 문명이었다. 따라서 메슈까는 이를 이용해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변부 도시국가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페노츠피틀란에서 재생산된 톨떼까 신화와 신들이 전통적인 본래 특성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톨라와 페노츠피틀란 간의 시기적인 공백이 400여년에 이르고, 톨떼까 문화가 꼴우아칸을 통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비켜 갈 수는 없었다. 게다가 단순히 차용된 것이 아니라, 메슈까의 이주 과정 역사를 포함해 당시 정치 상황까지도 덧입혀졌다. 로드리게스(Rodríguez)에 따르면, 전통적인 농업 관련 신들조차도 메슈까의 패권적인 상황에 맞추어 전쟁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1996, 20). 더 큰 문제는 톨떼까 문화가 치치메까 시대에도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적지나 건축물은 물론이고 유물과 사료 부족으로 치치메까 시대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답보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톨떼까 신화체계와 신들의 특성이 치치메까 시대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메슈까 시대에 재생산된 톨떼까의 신화체계와 신들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변형되고, 메슈까 신흥 신들과의 관계 또한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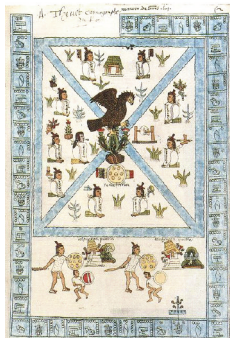
7) 솔로플 왕의 후손들 또한 톨라의 왕실 혈통과 섞였다. 솔로플 왕이 자신의 아들(Nopaltzin)을 톨라의 정통 계승자인 뽀초플(Póchotl)의 딸(Azcatixóchitl)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다(Alva 1985a, 417-424). 뽀초플은 톨라의 마지막 왕(Topiltzin)의 아들이었다(Alva 1985b, 3). 따라서 페나유키의 노빨썬 왕은 꼴우아칸의 왕(아치포메플)과 동서지간이 된다. 우리는 보통 톨떼까와 치치메까 시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당시 정치 상황과 혈통적 관계를 고려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패권도시국가의 종족 교체를 근거로, 이후에 분류한 인위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III. 새로운 이데올로기

1. 왕권 강화

떼노츠티틀란에서 발견된 건축물과 다양한 유물은 오랫동안 신화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대신전은 메쉬까의 우주관을 응축한 대표적인 유적(<그림 7>)이다. 그러나 7차에 걸쳐 증축되면서 높이 45m에 이르는 거대 건축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실체가 드러난다. 먼저, 초기 신전 터는 규모가 작고, 높이 또한 4.5m에 불과할 정도로 볼품이 없다. 그러나 아스카보쌀코 연합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쓰코야틀 왕(4대) 이후 5차레나 더 증축되면서 그 규모가 거대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떼노츠티틀란의 정치적

인 입지와 영향력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4개 지역 갈빨리(<그림 11>)에 대한 중앙조직의 장악력이 확대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11>



<그림 12>

그리고 꼬을샤우끼 원형석판이 발굴된 4번째 증축 시기의 건축물이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신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뱀 형상의 조각물도 이 때 제작되었다. 이 시기는 목떼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5대)과 아샤야까틀 왕(6대)이 재위했던 1454-1469년 사이이다(Aguilar 2006, 235). 다시 말해, 두 왕이 집권했던 시기에 메쉬까의 우주관이 건축학적으로 완결되고, 대신전 전체의 틀이 잡혔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왕실위원회(<그림 12>)의 구성원(4명)이, 꾸아우틀로게쓰기 혈통의 후손들로 집중되며 정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었을 때였다. 당시 왕실위원회는 텍칼리(teccalli)를 통해 4개 지역 갈빨리에 대한 정치·행정 장악력을 높이며 왕권을

강화했다.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왕권이 강화된 패권 도시국가의 면모가 구축된 시기였다.

왕권 강화의 흔적은 대신전 이외에 다른 유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왕들의 인물상이다. 두란의 기록을 보면, 이쓰꼬아틀 왕은 자신과 이전 왕들의 상을 바위에 부조하도록 명령했다(1995a, 174). 사료에서 이런 형태의 기록이 발견되는 것은 이쓰꼬아틀 왕 때가 처음이다. 이후 여러 왕(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아우이소틀, 목떼수마 쇼꼬요썬)도 자신들의 상을 바위에 새기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의 공적을 기리며 왕권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부조물은 기록에만 등장하고 현재 남아 있지는 않다.



〈그림 13〉

왕권 강화에 기여한 다른 예술품은, 제5태양신화와 연계해 왕의 신화·종교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인신공양 원형석판(<그림 13>)이다. 현재까지도 이 원형석판은 제5태양신화를 중심으로 인신공양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글레디에

이터 인신공양을 위해 사용된 석판(temalcatl)이었고, 동시에 심장을 담은 용기(cuauhxicalli)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원형석판 둘레면에는 정복된 도시국가 왕의 머리카락을 움켜 쥔 메쉬까 왕의 위압적인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⁸⁾ 이런 부조에는 왕의 주요 정복지를 보여주는 기록적인 특징과, 왕의 공적을 인신공양 의식 때마다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정치 선전물적인 특징이 드러난다. 게다가 꽃의 전쟁이 부조된 둘레면과, 인신공양이 실행되는 윗면은 구조적으로 제5태양의 순환원리가 도식되어 있다. 따라서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을 주재하는 지상 최고의 주체는 왕

8) 인신공양 원형석판의 둘레면에 새겨진 15개의 부조를 페노츠뎀플란의 15개 깔빨리로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Pasztor 1983, 147-151).

이며, 이를 통해 왕은 우주 순환을 유지하고 천상과 지상세계를 이어주는 중재자로 자리 잡는다.

현재까지 인신공양 원형석판은 3개(제작 시기의 왕: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아샤야까틀, 띠속)가 발굴되었다. 이런 대형 석조물이 자주 제작된 것은 신흥 정치세력의 정치적인 위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이쓰꼬아틀 왕은 모계가 아스까뽀쌀꼬 혈통(노예 출신)이었고,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또한 모계 혈통(Cuauhnahuac)이 취약해 정치적인 위상이 견고하지 못했다. 특히,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은 부자계승의 전통을 깨며 왕위를 이었고, 꾸아우틀로께쓰끼 모계 혈통 출신의 두 번째 왕이었다. 무엇보다도 왕위 계승 과정에서 신흥 정치세력 중에, 떼빠네까 모계 혈통의 왕족들(이쓰꼬아틀 왕의 후손)이 중앙조직에서 밀려났다. 따라서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시기에 제작된 인신공양 원형석판(<그림 13>)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특정 혈통으로 집약된 신흥 정치세력이 다른 혈통의 왕족은 물론이고, 4개 지역 깎빨리 장들과도 차별화하며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다지려는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왕이 자기희생의식을 치르는 부조물(<그림 14>)도 있다. 대신전 증축(8-갈대, 1487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된 이 석판에는 띠속 왕과 아우이소틀 왕이 함께 자기희생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 두 왕의 꺾불에서 피가 흘러 나



<그림 14>

와 뜰랄떼꾸뜰리의 입으로 떨어지고 있다. 왕이 흘린 피 또한 인신공양이 된 전사의 피처럼 제5태양을 순환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생명력이었다. 이 부조물 또한 당시 떼노츠뜨뜰란의 미묘한 정치 상황을 드러낸다. 이 시기는 3명의 형제(Axayácatl, Tizoc, Ahuitzotl)가 연속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꾸아우틀로께쓰끼 혈통의 왕족들이 최고로 득세했던 때였다. 특히, 자신의 형(띠속 왕)을 독살시켰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었던 아우이소틀 왕이, 이미

죽어 현존하지 않는 피속 왕과 함께 자기희생의식을 치르는 장면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여러 소문과 비난을 희석하고, 왕족 내의 화합을 모색하며 왕권을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멘도사 고문서』와 『공물명부』를 통해서도 당시 왕들의 정치적인 위상과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대외 정복지를 확인할 수 있고, 37개 연합체에서 80일마다 바치는 공물의 품목을 통해 부의 수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왕족과 귀족들의 저택 규모나 의복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무역 거래를 전담했던 보츠페까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시장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⁹⁾ 페노츠띠플란이 농업과 어업 중심의 전통적인 갈빨리 경제체제에서 벗어난 것은, 왕권이 급속히 강화된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 시기였다. 이때에 페노츠띠플란은 자급자족의 전통적인 시장경제에서 대외 시장과 연계된 유통경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품이 도시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제작된 예술품은 신혼 정치세력의 신화·종교적인 정통성을 홍보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변화했다.

2. 제5태양신화

메쉬까의 예술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특징은 제5태양신화이다. 이 신화는 대신전의 구조와 ‘태양의 돌’을 비롯해, 꽃의 전쟁이나 인신공양과 연계된 상당수의 유물과 고문서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는 메쉬까 예술품의 특징을 신화·종교적이며 군사·폭력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5태양신화가 신혼 정치세력의 상황과 맞물려 급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당시 이들은 신화적 정통성을 확고히 정립해 왕족 내 우위를 선점하고,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페노츠띠플란이 패권도시국가로 급성장하면서 연합체 전체를 결속시

9) 보츠페까의 모습은 여러 고문서(『멘도사 고문서』, 『플로렌스 고문서』 등)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킬 수 있는 새로운 신화·종교·정치 이데올로기가 시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태양의 주기적인 탄생과 소멸에 기초한 제5태양신화였다.

물론, 메쉬까가 태양신화를 처음 창조한 것은 아니다. 「치치메카 역사」에 따르면, 치치메카는 역사를 4개 태양시대(물의 태양, 땅의 태양, 바람의 태양, 불의 태양)로 구분했고, 정착했던 종족을 4개(거인-올메까/쉬갈랑까-톨테까-치치메까)로 분류했다(Alva 1985b, 7-9).¹⁰⁾ 톨테까 또한 역사를 4개 태양으로 구분하고, 자신들의 시대를 제4태양으로 규정했다(Alba 1985a, 263-265). 종합해 보면, 톨테까는 물론이고 치치메카 시대까지도 제4태양신화가 역사 인식의 기본 틀이었다.



〈그림 15〉

반면에, 메쉬까는 역사를 5개 태양으로 구분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제5태양으로 명명했다. 다시 말해, 톨테까와 치치메까의 제4태양시대와 구분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제5태양시대를 열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를 대표하는 최고의 유물이 아사야

까틀 왕(재위 기간: 1469-1481) 시기에 제작된 ‘태양의 돌’(<그림 15>)이다. 원형석판 최상단부에 13-갈대(Omey-Ácatl)가 부조되어 있어서 1479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료적으로 제5태양과 관련된 기록은 많은 편이고, 그 내용 또한 이질적이다. 그러나 ‘태양의 돌’의 부조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료는, 사아군이 저술한 저서(*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에서 삭제된 것으로 여겨지는 「태양의 전설」 뿐이다.¹¹⁾ 제5태양의 기호

10) 치치메카 시대에 아폴우아칸을 중심으로 멕시코 분지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메스코쾨는 태양 대신에 정주민을 중심으로 3개 시대(거인-톨테까-치치메까)로 분류했다(Alba 1985a, 417-424).

11) 「태양의 전설」 이외에 「꾸아우피틀란 연대기」에도 제1-5태양신화(물의 태양, 호랑이의 태양, 비의 태양, 바람의 태양, 움직임의 태양)가 서술되어 있다(Feliciano(ed.) 1992, 5). 그리고 가리바이가 편집한 책에도 다양한 버전이 수록되어 있다. 1-5태양을 기록한 것이 2개 있고, 제5태양만 서술한 것도 1개 있다(Garibay(ed.) 1973, 23-35;

(nahui-ollin) 내에 있는 4개 태양(Nahui Océlotl, Nahui Ehécatl, Nahui Quiáhuatl, Nahui Atl)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4개 태양은 각각 676년, 364년, 312년, 676년 동안 존재했다(Feliciano(ed.) 1992, 119-122). 솔리스(Solís)에 따르면, 시간(역사)의 흐름을 종교력(260일)과 일반력(360일)의 최소공배수인 52년 주기에 바탕을 두고, 태양의 생성과 소멸로 이해했던 멕시코 중앙고원지대의 전통적인 우주관이다(2000, 32-39).

제5태양신화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그 내용이다. 먼저, 기원지가 페오띠우아칸이고 톨테카의 여러 전통 신들이 등장한다. 계쌀꼬아틀은 인간을 창조하고 옥수수가 있는 토나까페떼틀을 찾아냈다. 그리고 태양(Nanáhuatl)과 달(Nahuitécpatl)의 창조를 비롯해, 믹스꼬아틀과 치말마 그리고 믹스꼬우아탄생신화가 서술된다(Feliciano(ed.) 1992, 121-127).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5태양의 출발점이 톨테카 신화체계에 있다. 단지 톨테카의 주신만을 쏙 빼놓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태양과 인간 창조, 옥수수의 발견 등)은 모두 차용했다. 따라서 치말마와 믹스꼬아틀이 아스뜰란에 등장하는 『보뚜리니 고문서』는 물론이고, 톨테카와 메쉬카를 동일 근원으로 서술하는 모폴리니아의 기록 또한 제5태양신화의 맥락에서 서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흥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신화적 정통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메쉬카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미화시키려 했던 다양한 노력은 예술품 이외에 역사 서술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토나띠우의 얼굴을 중심으로 ‘4-움직임’ 기호가 부조되고, 기호 내부에 제1-4태양을 배치하며 그 순환원리를 다양한 역력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유물은 ‘태양의 돌’이 유일하다. 이쓰꼬아틀 왕 시기부터 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을 거쳐 아샤야까틀 왕 시기에 석조물로 형체를 드러낸 것이다. 페노츠미뜰란 내부적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태양의 돌’ 제작은 당시 아샤야까틀 왕(재위 기간: 1469-1481)의 정치적인 입

103-106; 108). 그리고 페스꼬꼬 버전의 제5태양 창조와 찰꼬의 태양 창조신화도 수록되어 있다(Garibay(ed.) 1973, 109-110).

지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사실, 아사야까들은 한 세대(3촌, 5촌)를 건너 뛰어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왕족 내 입지가 불안정했다. 게다가 부계는 떼빠네까 혈통(이쓰꼬아틀 왕의 아들)이고, 모계는 꾸아우뜰로게쓰끼 혈통(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의 딸)이었다. 따라서 밀려났던 것으로 여겨졌던 떼빠네까 세력이 다시 등장하며 중앙조직 내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의 돌’이 제작된 1479년은 이런 내부 갈등이 봉합되고 안정을 되찾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왕족 내 갈등에서 승리한 꾸아우뜰로게쓰끼 혈통의 정치세력이 신화·정치적인 우위를 재확인하고, 왕권의 견고함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석조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3.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

신흥 정치세력은 제5태양과 연계해 꽃의 전쟁 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그 출발점은 페노츠뭇플란 건국신화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선인장 열매에 앉아 있는 독수리 부리의 하단에 전쟁을 상징하는 문양(atl-tlachinolli)이 새겨져



〈그림 16〉

있기 때문이다(<그림 16>). 이런 형태의 부조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창조되었던 시기에 재구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두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1995a, 88-92). 무엇보다도 지상세계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스런 행위이며, 이때 흘린 피는 우주의 순환 리듬을

유지하는 생명력이란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선택된 종족은, 제5태양시대를 열은 메쉬까라는 선민사상으로 이어진다.

인신공양의 의미는 제5태양의 순환원리와 연계된 ‘태양의 돌’의 중심부에 잘 나타나 있다. 흑요석 칼 형태로 부조된 토나띠우의 혀와, ‘4-움직임’ 기호 양편에서 심장을 움켜쥔 독수리의 발톱이 부조(<그림 15>)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신공양된 전사의 피와 심장이 제5태양을 유지하는 생명력이며 우주 순환의 동인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신공양 원형석판은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의 유기적인 의미를 제5태양의 순환원리와 결합한 최고의 조각물이다. 지상세계에서 전쟁을 통해 포로를 확보하고, 인신공양을 통해 바쳐진 심장과 피가 제5태양의 순환을 유지한다는 사상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림 17〉

이런 유물들의 근저에는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을 주관하는 지상 최고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이 내재해 있다. 더 나아가 왕권의 신화·종교적인 정통성이 강조된다. 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1507년에 제작된 ‘성전의 신전’(<그림 17>)이다. 제5태양 양편으로 우이쉴로보츠플리(좌)와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우)이 흑요석 칼과 꼬빨 주머니를 들고 의식을 치르고 있다. 전쟁과 인신공양을 통해 제5태양이 원만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단부 밑면에는 뜰랄떼꾸뜰리가 부조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이 메쉬까의 수호신과 대등하게 서 있는 모습이다. 왕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왕이 수호신과 대등하게 등장한 경우는 처음이다. 왕권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부조물이다. 실제로,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기존 왕들의 세력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전훈 귀족들을 중앙조직에서 일시에 밀어내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그림 18〉



〈그림 19〉

먼저, 꽃의 전쟁과 관련된 유물과 고문서를 살펴보면, 그 수가 상당하다. 대 신전 하단부 벽화에 나타나는 14명의 전사(<그림 18>)가 가장 대표적이고, 「멘도사 고문서」(<그림 19>)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을 찾을 수 있다. 마까나와 방패를 들고 있는 독수리 전사와 재규어 전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다양한 갑옷과 투구의 종류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로 생포와 관련된 다양한 보상체계(직급과 사회적 지위 변화)도 알 수 있다.

인신공양과 관련된 유물과 고문서 그림 또한 매우 풍부하다. 인신공양 원형 석판을 비롯해 심장을 간단히 적출하는 작은 석조물(techcatl)(<그림 20>), 심장과 피를 담는 다양한 용기<그림 21>,¹²⁾ 인신공양용 칼(<그림 22>)과 가시 등을 보관했던 석재 상자(tepetlacalli) 등이 있다. 그리고 인신공양된 전사의 해골을 꿰어 쌓아 놓은 춤빔틀리(<그림 23>)는 대규모 인신공양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준다.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사실, 태양의 순환과 연계된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 개념은 메쉬까가 처음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 원형을 뜰때까 신화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의 전설」에 따르면, 태양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믹스꼬우아들이 공급하지 않자, 동일 모친을 둔 5명의 동생들(그 중 1명은 믹스꼬아딸)이 형들(400명의 믹스꼬우아)과 전쟁을 하고, 사로잡은 형들을 태양과 뜰때꾸뜰리에게 식량으로 바쳤다(Feliciano(ed.) 1992, 125). 그 구조를 보면, 형제간의 대립구도를 통해 우주 순환의 원리를 설명하는 메소아메리카의 전형적인 신화 서술이다.

12) 인신공양된 전사의 심장과 피를 담았던 용기는, 독수리와 재규어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용기의 수가 상당하다.

가리바이가 편집한 사료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신화가 있다. 제5태양이 창조된 이후에 까막스플레(Camaxtle, 다른 이름: 믹스꼬아뜰)가 천상 8계에서 창조한 남성(4명)과 여성(1명)이, 까막스플레가 바위를 쳐서 창조한 400명의 치치메까(오토미)와 전쟁을 하고, 이들의 심장과 피를 태양에게 바쳤다(Garibay(ed.) 1973, 36). 신화와 역사가 혼합된 내용이지만 모계를 달리해 태어난 형제간의 전쟁을 우주순환의 원리로 구조화했다.

앞의 2개 신화를 분석해 보면, 메쉬카가 발전시킨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 개념은 톨테카 태양신화의 우주 순환원리에 기초해 있다. 다시 말해, 톨테카의 전통적인 신화 개념을 메쉬카가 재해석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제간의 대립구도가 우이쉴로보츠틀리와 꼬올샤우끼(썬손우이쓰나우아 포함) 사이의 이원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메쉬카의 우주관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 시기는 1450년대이다. 1450년대 전반기에 발생한 연속된 기근으로 플라스칼라 지역의 왕들과 합의 하에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찰꼬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한 145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포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을 통해 지상세계에 거주하는 인간이 제5태양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다(Lcón-Portilla 1991, 67). 그리고 ‘성전의 신전’의 해골 부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인신공양된 전사는 사후에 천상계로 승천해 우주순환에 관여하고 신의 세계와 합일한다는 개념으로까지 미화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다른 대표적인 유물은 춤빔틀리(<그림 23>)이다.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은 제5태양신화와 메쉬카의 우주관을 떼노츠띠뜰란 내에 빠르게 안착시켰다. 그리고 대외 정복을 정당화하며 떼노츠띠뜰란을 거대 연합체의 패권도시국가로 성장시킨 주요 동인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떼노츠띠뜰란 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난다. 먼저, 꽃의 전쟁은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이 4개 지역 깔빨리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고, 왕권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꽃의 전쟁에서 능력이 검증된 젊은 엘리트들을 선발해 중앙조직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메캅(calmecac)에서 제도적으로 양성된 독



〈그림 24〉

수리 전사(<그림 24>)와 재규어 전사 또한 꽃의 전쟁을 통해 중앙조직으로 흡수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활성화시켰다. 이들은 왕과 신흥 정치세력을 보위하며 페노츠피틀란의 변화를 이끈 내부 동력이었다.

인신공양 또한 오랫동안 신화·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페노츠피틀란 내에만 78개의 신전이 있었고(Sahagún 1985, 158-164), 18개월 중에 10달이나 포로를 정기적으로 인신공양했다는 기록(Durán

1995b, 245-291)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언어와 문화가 달랐던 거대 연합체를 공포를 통해 통제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정치 수단이었다. 그런데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이 크게 활성화된 데는 페노츠피틀란 내부의 다른 요소가 숨겨져 있다. 제5태양신화를 신화·종교적인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신흥 정치세력을 측면에서 지탱한 사제들이 그 주인공이다. 신관 혈통 출신의 왕들이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이들은 급격히 성장했고, 우이쉴로쁘츠틀리 신전의 제사장이 11대 왕(목떼수마 쇼꼬요썬)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Alva 1985b, 177). 이들은 다양한 종교 의식(일반력의 종교행사, 전쟁 관련 의식 등)뿐만 아니라 인신공양 의식을 독점하며 종교·정치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대외 정복에서 얻은 토지(teopantlalli)와 각종 전리품이 급증하면서 신전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신전의 명성과 종교·정치 영향력은 인신공양의 규모와 횟수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신전 사이에는 경쟁적으로 인신공양이 빈번해졌고, 그 규모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페노츠피틀란의 대외 정복은 꽃의 전쟁이라는 허울 아래 멈출 수 없는 괴물로 변화했다. 전쟁 포로를 비롯해 각종 전리품(노획물, 노예, 땅 등)을 제때에 공급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미정복지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IV. 메쉬카의 우주관

1. 우이쉴로쁘츠틀리의 실체

대신전의 구조를 비롯해 메쉬카의 주요 신들이 등장하는 유물과 고문서들을 비교·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 메쉬카가 창조한 새로운 우주관이 드러난다. 그런데 메쉬카의 수호신인 우이쉴로쁘츠틀리부터 그 특성과 기능이 애매하고 복잡적이어서 난관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사실, 이전의 많은 연구자도 각기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우이쉴로쁘츠틀리가 께쌀꼬아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Graulich 1990, 373), 역사 왜곡 이전에는 푸른 페스까틀리쁘까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연구자도 있었다(León-Portilla 1997, 95). 이런 결과가 생긴 주 원인은, 신흥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수호신인 우이쉴로쁘츠틀리를 패권도시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신으로 급히 변조시킨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전통이 미비한 이주 종족의 후손들이었고, 우이쉴로쁘츠틀리를 멕시코 분지 내외의 전통신과 비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신으로 급조하는 것 또한 여건상 쉽지 않았다. 결국, 피사빠 사건과 꿀우아 모계 혈통을 연결고리 삼아 우이쉴로쁘츠틀리의 이미지와 특성을 뜯떼까 신화 체계에 끼워 맞추는 왜곡으로 그치고 말았다.¹³⁾



〈그림 25〉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서 사건’과 ‘아스틀란 원정대 사건’을 경계로 우이쉴로쁘츠틀리(<그림 25>)의 특성과 기능을 나누어 보면 된다. 먼저, 이주 초기 과정에 등장하는 우이쉴로쁘츠틀리는 한 종족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수호신을 섬기는 사제이기도 했다(Chimalpain 1991, 31-33). 반면에, 나우아틀라까 개념에 충실한『보뚜리니 고문

13) 메쉬카는 꿀우아와의 관계를 혈통적인 사실보다는, 그 이전에 발생한 피사빠 사건을 종교의례적인 사건으로 미화하며 형식적인 연결고리로 내세웠다. 매우 자의적이며 왜곡된 역사 서술이다.

서』에서는 꼴우아칸의 제단에서 우이쉴로보츠틀리의 형상이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이주 과정에서 메쉬까가 3명을 인신공양 하자, 우이쉴로보츠틀리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처음 나타나 여러 도구(화, 화살, 그물)를 건네주었다. 그 때에 우이쉴로보츠틀리는, 꼴우아칸에서 출발한 다른 7개 종족과 구분하기 위해 아스떼까 대신에 메쉬까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라 명령했다(<그림 3>). 이는 페소소목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Alvarado 1992, 22-23).

이후 이주 과정과 페노츠띠틀란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이쉴로보츠틀리의 특성은 두란과 페소소목의 기록에 잘 서술되어 있다. 우이쉴로보츠틀리는 자신을 섬기는 4명의 신관을 통해 메쉬까 집단을 이끌었던 깔빨리 수호신이었다. 3개 장소(말리날꼬, 꼬아떼뻑, 차빨떼뻑)에서 자신의 누이(조카 포함)와 갈등을 노출했고, 꼬아떼뻑에서는 약속의 땅(페노츠띠틀란)을 시현하기도 했다. 페노츠띠틀란 정착 이후에도 이전처럼 메쉬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4명의 신관을 통해 위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깔빨리 수호신이었다.

그러나 아스틀란 원정대 사건 이후에 우이쉴로보츠틀리의 위상과 특성이 크게 변화했다. 먼저, 우이쉴로보츠틀리는 톨떼까 신화체계에 삽입되어 제5태양시대에 등장한다. 여기서 우이쉴로보츠틀리는 태양으로 변신한 주체가 아니라, 창조된 태양(나나우아틀)이 처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신공양을 한 여러 신(Titlacahuan, Xochiquetzal, Yapanilicue, Nochpalilicue) 중 하나였다(Feliciano (ed.) 1992, 121-122).¹⁴⁾ 가리바이가 편집한 사료에서도 우이쉴로보츠틀리의 위상과 특성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이쉴로보츠틀리는 두 신(Tonacateuctli, Tonacacihuatl)이 낳은 4명의 자식(Tlatlahqui Tezcatlipoca[다

14) 정복 시기에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현재까지도 위상에 걸맞은 우이쉴로보츠틀리 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Xiuhtecuhtli-Huitzilopochtli라 이름 붙인 석상과 우이쉴로보츠틀리가 사용하는 무기(Xiuhcoatl)는 석조물로 남아 있다. 반면에, 우이쉴로보츠틀리와 관련된 고문서는 상당하다. 『아스까띠틀란 고문서』에는 우이쉴로보츠틀리가 꼬아떼뻑에서 탄생하는 그림이 있고, 『플로렌스 고문서』에서는 우이쉴로보츠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른 이름: Camaxtle], Yayauhqui Tezcatlipoca, Quetzalcóatl[다른 이름: Yohualli Ehecatl], Omitecutli[다른 이름: Maquizcoatl. 메쉬까는 ‘우이쉴로보츠플리’라 호칭]) 중에서 막내로 등장한다(Garibay(ed.) 1973, 23-24). 주목해야 할 점은, 우이쉴로보츠플리가 뜰때까 주신(또나까떼꾸플리)의 아들로 나타나고, 페스까플리보까와 계쌀꼬아뜰은 물론이고 믹스꼬아뜰과도 형제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메쉬가가 급조한 제5태양신화 2개를 분석해 보면, 그 기본체계는 뜰때까 신화이고 우이쉴로보츠플리는 생똥맞게 끼여져 있다. 급작스럽게 패권도 시국가로 등장했고 내세울만한 전통과 문화 또한 변변치 못했던 신흥 정치세력이, 뜰때까 신화체계를 차용해 우이쉴로보츠플리의 신화적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 시도한 흔적들이다. 이후 제5태양신화는 페노츠띠뜰란을 대표하는 신화·종교·정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

2. 우이쉴로보츠플리 탄생신화의 구조

신흥 정치세력은 아스뜰란 원정대 사건 이후에 우이쉴로보츠플리를 뜰때까 신화체계에 끼어 맞추었다. 그리고 톨라 근처의 꼬아떼뻑에서 우이쉴로보츠플리가 탄생했다는 신화(<그림 26>)를 만들어 냈다. 꼬아떼뻑은 이주 과정에 우이쉴로보츠플리가 약속의 땅을 시현한 신화적인 공간이고, 깔빨리 간의 갈등



<그림 26>

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이쉴로보츠플리 탄생신화가 창조되었다. 그 구조를 사료별로 정리해 보면, 사아군의 기록에서는 꼬아뜰리꾸에(일원신)를 중심으로 이원신간의 대립구조(우이쉴로보츠플리 / 꼬올샤우끼, 쉰손우이쓰나우아)가 나타난다(Sahagún 1985, 191-192). 반면에, 가리바이가 편집한 기록은 뜰때까 신화에 가깝다. 이원적 갈등 구조가 꼬아뜰리꾸에와, 페스까플리보가가

창조한 400명의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Garibay 1973, 43).

그러나 이원적 갈등 구도의 기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주 과정에 발생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말리날꼬, 꼬아떼뻬, 차뽀떼뻬)이다. 말리날꼬와 차뽀떼뻬 사건의 경우에는 우이쉴로뽀츠플리와 갈등을 빚은, 누이(말리날쓰치틀)와 조카(꼬뽀, 말리날쓰치틀의 아들)가 꼬올샤우끼와 쉰손우이쓰나우아의 구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꼬아떼뻬에서 약속의 땅인지를 놓고, 우이쉴로뽀츠플리와 갈등을 빚었던 꼬올샤우(Coyolxauh)와 그 무리들 또한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에 떼소소목의 기록에서는 꼬올샤우씨우아틀(Coyolxauhcihuatl)의 정체가 두란의 기록과 다르다. 우이쉴로뽀츠플리의 모친이며, 쉰손우이쓰나우아의 누나로 등장하기 때문이다(Alvarado 1992, 34-35). 다시 말해, 우이쉴로뽀츠플리가 어머니를 비롯해 외삼촌들과 갈등을 빚는 이원구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주 과정에 발생했던 꺾뽀리들 간의 여러 갈등이 우이쉴로뽀츠플리 탄생신화의 내부 구조를 형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27〉

우이쉴로뽀츠플리 탄생신화에서 정체를 밝히기 어려운 신은 꼬아틀리꾸에(<그림 27>)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제5태양신화에서 우이쉴로뽀츠플리와는 달리 그 존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으로 보는 메쉬까 역사」에서 꼬아틀리꾸에는 떼스까뽀리뽀까가 창조한 400명의 인간과 대립하기도 하지만(Garibay(ed.) 1973, 43), 세상창조와 관련된 신화적인 기능이나 활동을 찾을 수 없다. 사료 부족으로 뜰때까 신화체계에서는 더 이상 꼬아틀리꾸에를 찾을 수 없지만, 가리바이가 편집한 나우아틀 시에서는 따모안찬 출신의 모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1987, 117). 반면에, 이주 과정에서는 아스뜰란에서 메쉬까를 이끌고 나온 3명(Xuihtzin, Tecpatzin, Coatlicue)의 지도자 중 한명이었다(Garibay(ed.) 1973, 39).¹⁵⁾ 우이

15) 허리띠 중앙 아랫배 부분에 해골을 매달고, 4개의 손바닥이 양편에 조각된 꼬아틀리꾸에의 모습은 뜰때까의 믹뜰란씨우아틀(죽음의 여신)과 상당히 유사하다.

쉴로보츠틀리 신전으로 오르는 계단의 하단 지표면에 놓인 원형석판의 주인공, 꼬올샤우끼(<그림 28>) 또한 그 정체가 모호하다. 이 원형석판에서 꼬올샤우



<그림 28>

끼는 머리와 팔다리가 절단되고, 허리춤에는 해골을 매달고 있는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다. 꼬아틀리꾸에와 비교해 꼬올샤우끼와 관련된 석조물은 그 수가 상당히 6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톨떼까 신화체계는 물론

이고 제5태양신화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톨떼까 신화체계를 차용하며 이루어진 신화 왜곡은 주로 우이쉴로보츠틀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신(꼬아틀리꾸에, 꼬올샤우끼)의 경우는 신화 왜곡에서 벗어나 떼노츠떠틀란 깔빨리들의 수호신이나 지도자적인 특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논문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만 하다. 로뎬스에 따르면, 14개 깔빨리 중에서 2개(huitznáhuac, Itepéyoc)는 우이쉴로보츠틀리를, 1개(Yopico)는 꼬아틀리꾸에를 깔빨리 수호신으로 삼았다(1989, 67). 그리고 마토스에 따르면, 꼬올샤우끼는 우이쓰나우아의 지도자였다(1999, 136). 따라서 메쉬가가 창조한 우주 순환의 내적 원리는, 이주와 정착 과정에 등장하는 깔빨리들 간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이쉴로보츠틀리 탄생신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톨떼까 신화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 드러난다. 먼저, 우이쉴로보츠틀리의 탄생지를 톨라 근처의 꼬아테벙으로 설정한 것부터가 톨떼까 전통과 연계시키려 노력한 흔적이다. 그리고 꼬아틀리꾸에가 두 번에 걸쳐 임신해 꼬올샤우끼(그리고 400명의 썬손 우이쓰나우아)와 우이쉴로보츠틀리를 출산하는 원형 또한, 톨떼까 신화의 이스막찰치우틀리꾸에(Iztacchalchiuhtlicue)에서 찾을 수 있다(Feliciano(ed.) 1992, 125). 이 여신은 먼저 400명의 믹스꼬우아를 출산했고, 이후에 5명의 아들을 낳았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톨떼까의 여신과는 달리, 꼬아틀리꾸에가

두 번에 걸쳐 낳은 자식들은 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원적 갈등 구조(우이쉴로보츠플리/ 꼬올샤우끼, 400명의 쉰손우이쓰나우아)는 톨떼카 신화의 것(5명의 아들/ 400명의 믹스꼬아우아)과 동일하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톨떼카 신화에 등장하는 5명의 형제 중에 믹스꼬아우아들이 둘째라는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메쉬카가 창조한 현세의 순환구조에서 우이쉴로보츠플리가 수행하는 행위는, 톨떼카의 믹스꼬아우아들이 보여준 신화적인 행위를 반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우이쉴로보츠플리는 태양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꼬올샤우끼와 400명의 쉰손우이쓰나우아를 응징하고, 이들의 피와 심장으로 태양이 순환할 수 있도록 신화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흥 정치세력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 발생했던 칼빨리들 간의 역사적인 갈등을, 톨떼카 신화체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우이쉴로보츠플리 탄생신화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이쉴로보츠플리와 꼬올샤우끼(그리고 400명의 쉰손우이쓰나우아) 간의 이원적 갈등 구조로 구성되었다.¹⁶⁾ 이를 상징적으로 응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은 꼬아떼벙이라 불렀던 우이쉴로보츠플리 신전이다. 그 구조를 보면, 신전 정상에 우이쉴로보츠플리가 모셔져 있고, 신전 하단부의 지표면에는 꼬올샤우끼 원형석판이 놓여 있다. 따라서 신전 정상의 우이쉴로보츠플리 제단에서 전쟁 포로가 인신공양 되면, 그 사체가 계단을 굴러 정확하게 꼬올샤우끼 원형석판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건축학적인 구조를 이용해 메쉬카는 인신공양은 물론이고, 매년 15월마다 우이쉴로보츠플리와 꼬올샤우끼(400명의 쉰손우이쓰나우아 포함) 간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재현했다(Durán 1995b, 282-284). 에드헤임(Erdheim)은 이런 의식을 통해 메쉬카가 왕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왕권을 강화했다고 평했다(1980, 203).

이처럼 메쉬카 예술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예술품의 미적 가치는 신화체계의 내적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예술품들과 유기적인 관계

16) 우이쉴로보츠플리와 꼬올샤우끼 간의 이원성은 신화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원성 개념(태양/달, 낮/밤, 중심부/주변부, 승자/패자 등)으로 변화해 갔기 때문이다.

를 뗔을 때에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신화의 내적 원리는 예술품들의 건축학적인 배치 구조를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대신전은 인신공양만을 치르는 종교의례 공간이 아니라, 신화를 역사적으로 반복하는 연출 공간이며 그 무대였다.



〈그림 29〉

꼬올샤우끼 석판이 발견된 장소는 1454-1469년 사이에 증축된 신전터로 목떼수마 일루이까미나 왕과 아샤야까뜰 왕 시기에 속한다. 이 터에는 4번째로 증축된 기저 부분만 남아 있지만, 그 규모와 건축학적인 정교

함이 다른 시기에 증축된 기저 부분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이 시기에 이주 과정과 페노츠띠뜰란 정착 과정의 역사가 뜰때까 신화체계와 접목되어 메슈까의 우주관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페노츠띠뜰란 건국신화가 개구리 재단(<그림 29>)을 통해 상징적으로 잘 응축되어 있다. 동일한 증축 신전에서 발견된 두 마리의 개구리는, 두란과 떼소소목의 기록에서 ‘약속의 땅’ 발견과 관련해 등장하는 상징적인 양서류이다(1995a, 88; 1992, 62).

V. 문제 제기: 뜰랄떼꾸뜰리

페노츠띠뜰란 대신전에는 뜰랄록과 뜰랄떼꾸뜰리가 있고, 그 경내에는 께쌀꼬아뜰과 떼스까뜰리뽀까 신전이 있을 정도로 뜰때까의 전통신들이 도시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그리고 께쌀꼬아뜰과 떼스까뜰리뽀까의 경우는 신화 구조적인 특성이 우이썰로뽀츠뜰리와 꼬올샤우끼 같은 신들에게 상당부분 이어졌다. 반면에 뜰랄록을 비롯해 뜰랄떼꾸뜰리의 특성과 기능은 메슈까의 신들로 거의 대체되지 못했다.¹⁷⁾ 이를 반증하듯이, 발굴된 다

17) 꼬아뜰리꾸에의 특성 중 일부가 뜰랄떼꾸뜰리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뜰랄떼꾸뜰리의 전통적인 위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꼬아뜰리꾸에의 이미지와 기능은 다양하지 못했다.

양한 석조물과 고문서의 그림에서 가장 전통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

특히, 틀랄테꾸틀리의 신화적인 위상이 흥미를 끈다. 틀랄테꾸틀리는 풀떼카 신화를 비롯해 메쉬까의 제5태양 창조신화에도 등장한다. 세상을 만드는 기초 물질의 역할을 하고, 태양과 더불어 전사의 심장과 피를 원하는 지신이다. 『로드 고문서』에서 태양의 신 토나띠우가 도마뱀 형태의 틀랄테꾸틀리의 등에 앉아 있다(<그림 30>). 틀랄테꾸틀리와 토나띠우는 각각 땅과 태양, 그리고 지하와 천



<그림 30>

상세계를 상징한다. 그런데 틀랄테꾸틀리의 형상이 부조된 위치를 보면 다른 신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이 있다. 대신전의 경우에 틀랄록 신전의 하단부에 새겨져 있고, 꽃의 전쟁에 참여하는 14명의 전사 행렬 벽화에서도 아랫부분에 그려져 있다. ‘성전의 신전’에서도 동일하게 제5태양 원판 하단부 밑면에 부조되어 있다. 반면에, 꼬아틀리꾸에

석상과 께쌀꼬아틀 석상(1 acatl 이 새겨진 석상)에서는 발바닥 밑면에 부조되어 있다. 인간의 심장과 피를 담는 용기의 밑바닥 면에 새겨진 경우도 있다. 종합해 보면, 틀랄테꾸틀리는 거의 대부분 인신공양과 관련해 등장하고, 그 위치는 피가 떨어지는 하단부이거나 밑바닥 면이다. 인신공양된 전사의 피가 대지(틀랄테꾸틀리는 지신이다)를 풍요롭게 한다는 신화적인 내용과 맥락이 닿아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려는 문제는, ‘태양의 돌’에서 ‘4-움직임’ 기호의 중앙에 있는 상(<그림 31>)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처음 발굴되었을 당시에 레온 이 가



<그림 31>



<그림 32>

마가 태양신(토나띠우)이라 해석한 이후, 오랫동안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두 명의 연구자(Carlos Navarrete, Doris Heyden)가 틀랄테꾸틀리(<그림 32>)라는 새로운 견해를 밝히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

속되고 있다(1974, 355-376). ‘태양의 돌’에 등장하는 토나띠우의 얼굴 형태, 혹은 요석 칼 형태의 혀, 각종 장신구(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등)가 뜰랄떼꾸뜰리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전의 신전’에 부조된 뜰랄떼꾸뜰리(<그림 17>)와도 유사하다. 게다가 ‘태양의 돌’이 인신공양 원형석판의 한 형태이고, 그 중앙이 다른 원형석판의 경우에 심장과 피를 담는 용기의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뜰랄떼꾸뜰리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매우 높다.

VI. 나가는 글

페노츠띠뜰란 멸망(1521년)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축물과 석조 유물은, 초기 신전 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쓰꼬아뜰 왕(4대)부터 목떼수마 쇼꼬요썬 왕(9대)까지의 시기에 제작되었다. 고문서 그림의 경우에는 2차 아우디엔씨아 시기(1531-1535)부터 잠시 그려진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런 매쉬가 예술품들에는 뜰랄떼가 전통의 신화체계가 잔존해 있어서, 신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모호해 유기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정복 이전 예술품의 생산과 소비를 기획하고 조율한 신흥 정치세력을 고문서 그림과 연대기 기록을 바탕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매쉬가 예술품에는 신흥 정치세력의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투사되어 있고, 각 예술품의 미적 가치는 이런 내적 원리체계를 바탕으로 다른 예술품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미학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밝혔다.

신흥 정치세력은 아스까뽀쌀꼬 연합체와의 전쟁을 승리(1428년)로 이끈 주역이었으며, 꾸아우뜰로끼쓰끼 신관 혈통이 모계로 섞인 우이썰리우이뜰 왕(2대)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이들은 이주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었고, 급부상한 탓에 왕족 중심의 중앙조직에서뿐만 아니라 4개 지역 갈뽀리와의 관계에서도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정했다. 따라서 신흥 정치세력은 무엇보다도 신화·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당시 급성장하고 있었던 거대 연합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여기

서 메쉬까 예술품의 내적 원리체계가 탄생했다.

먼저, 신흥 정치세력은 신화와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신화·정치적인 정통성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를 위해 피사뻬 사건과 꼴우아 모계 혈통을 연결고리 삼아 메쉬까 역사를 톨떼까의 신화와 역사 체계에 이어 붙였다. 그리고 꾸아우플로께쓰끼 가문 중심으로 이주 역사를 재해석하고, 우이쉴로쁘츠플리와의 신화적인 혈통을 내세워 정치 정통성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치치메까 시대를 메쉬까 이전의 예비역사로 서술하며 메쉬까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미화했다. 이런 특징들은, 대신전 구조는 물론이고 제5태양신화와 메쉬까의 우주관이 함축된 다양한 예술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식민 초기에 그려진 다양한 고문서와 연대기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쉬까의 예술품에서 발견되는 다른 특징은 왕권을 강화하려 노력한 다양한 흔적이다. 먼저, 7차에 걸쳐 증축된 대신전을 통해 4개 지역 깔빨리에 대한 신흥 정치세력의 영향력과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시기 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인물상을 비롯해 인신공양 원형석판에서도 왕권 강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예술품에는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을 통해 우주 순환의 성스러운 의무를 맡고 있는 최고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과, 왕권의 신화·종교적인 정통성이 함축되어 있다.

메쉬까의 많은 예술품에 내재된 가장 큰 특징은, 제5태양신화의 내용이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며 예술품 창조의 내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신전 구조는 물론이고 ‘태양의 돌’(인신공양 원형석판 포함)과 ‘성전의 신전’을 비롯해, 꽃의 전쟁이나 인신공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유물과 고문서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사실, 이런 유형의 예술품이 주류를 이루고, 그 수가 많아 현재까지도 메쉬까의 예술품이 신화·종교적이며 군사·폭력적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5태양신화는, 신흥 정치세력이 우이쉴로쁘츠플리를 톨떼까 신화체계에 접맥시켜 전통신의 반열로 끌어 올리고, 메쉬까와 페노츠피틀란에 신화·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창조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제5태양신화는 톨떼까 신화체계 내에서

창조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뜰때까의 다양한 전통신들이 메슈까 신화에 공존하고, 메슈까의 신들과도 이미지와 특성이 뒤섞여 그 관계가 모호해졌다.

많은 석조 유물과 벽화 그리고 고문서 그림에서 자주 발견되는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은 제5태양신화와 연계된 메슈까의 대표적인 신화·종교·정치 이데올로기였다. 보통은 페노츠띠플란을 거대 연합체의 패권도시국가로 성장시킨 이데올로기로 알려져 있지만, 페노츠띠플란 내부적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꽃의 전쟁은 능력이 검증된 젊은 세대를 중앙조직으로 흡수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목메수마 일루이까미나 왕은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상당부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인신공양 또한 신화·종교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거대 연합체를 통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신흥 정치세력의 한 주축이었던 사제 계층을 급성장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사제들은 페노츠띠플란 내의 모든 인신공양 의식을 독점하며 종교·정치 영향력을 확대했고, 제5태양신화뿐만 아니라 꽃의 전쟁과 인신공양을 메슈까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다.

대신전의 우이쉴로쁘츠플리 신전을 비롯해, 메슈까의 주요 3신(꼬아플리꾸에, 우이쉴로쁘츠플리, 꼬올샤우끼)이 등장하는 석조물이나 고문서 등에는 메슈까가 창조한 우주관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일원신(꼬아플리꾸에)을 중심으로 이원신 사이의 대립구도(우이쉴로쁘츠플리 / 꼬올샤우끼, 쉰손우이쓰나우아)가 내적 원리로 잘 드러난다. 이는 무엇보다도 메슈까가 다른 종족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신화를 창조했다는 데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주관에는 다양한 특징이 내재해 있다. 먼저, 다양한 깰빨리 간에 발생한 이주 과정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는, 그 구조적인 원형이 뜰때까의 신화체계에 있으며 그 변형태라는 사실이다.

메슈까 예술품의 미적 가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신흥 정치세력이 주도한 신화·역사적인 정통성 확보와 왕권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

기의 내적 원리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내적 원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효율적인 기법이 발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대신전의 이원구조를 비롯해 우이쉴로보츠평리 신전에서 발견되는 신들의 건축학적인 배치 구조이다. 이런 공간 예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5태 양신화와 메쉬까의 우주관은 각 유물의 유기적인 기능 속에서 재현되고, 신흥 정치세력이 내세운 신화·종교·정치 이데올로기 또한 주기적으로 종교의식을 통해 환기되었다. 메쉬까는 이런 종교의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확인하고 내재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메쉬까 이데올로기의 주요 가치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고, 페노츠뎀플란의 정치·사회 질서로 변환했다. 그리고 메쉬까의 예술품은 우리 시대의 감각적이거나 자유로운 미적 가치와는 다르게, 이런 내적 가치의 재현과 환기에 충실하며 그 특성을 함축해 내는 형태와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메쉬까 예술품에 나타난 미학이다.

참고문헌

- Aguilar-Moreno, Manuel(2007), *Handbook to life in the Aztec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 Alva Ixtlilxóchitl, Fernando de(1985a), *Obras históricas I*, México: UNAM.
- _____(1985b), *Obras históricas II*, México: UNAM.
- Alvarado Tezozómoc, Fernando(1992), *Crónica mexicáyotl*, México: UNAM.
- Benavente Motolinía, Toribio(1994), *Relaciones de la Nueva España*, México: UNAM.
- Bueno Bravo, Isabel(2007), *La guerra en el imperio azteca: expansión, ideología y arte*, Madrid: Complutense.
- Chimalpain Cuauhtlehuanitzin, Francisco(1991), *Memorial breve acerca de la fundación de la ciudad de Chulhuacán*, México: UNAM.
- Durán, Diego(1995a),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 Firme I*,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_____(1995b), *Historia de las Indias de Nueva España e Islas de Tierra Firme II*,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 Erdheim, Mario(1980), “Transformaciones de la ideología mexicana en realidad social”, *Economía política e ideología en el México prehispánico*, México: Nueva Era, pp.195-220.
- Feliciano Velázquez, Primo(ed.)(1992), “Anales de Cuauhtitlan”, *Códice Chimalpopoca*, México: UNAM., pp.3-118.
- _____(1992), “Leyenda de los soles”, *Códice Chimalpopoca*, México: UNAM., pp.119-142.
- García Moll, Roberto y otros(1990), *Guía oficial: Museo nacional de antropología*, México: INAH-SALVAT.
- Garibay K, Angel María(ed.)(1973), *Teogonía e historia de los mexicanos*, México: Porrúa.
- _____(1987), *Historia de la literatura náhuatl*, México: Porrúa.
- Gendrop, Paul(2000), *Compendio de arte prehispánico*, México: Trillas.
- Graulich, Michel(1990), *Mitos y rituales del México Antiguo*, Madrid: Istmo.
- La tira de la peregrinación: Códice Boturini*, Gobierno del Estado de Nayarit, 1990.
- León y Gama, Antonio de(1832), *Descripción histórica y cronológica de las dos piedras que con ocasión del nuevo empedrado que se está formando en la Plaza Principal de México, se hallaron en ella el año de 1790*, México: Juan Pablos.
- León-Portilla, Miguel(1991), *Toltecatoytl: aspectos de la cultura náhuatl*, México: F.C.E.
- _____(1997), *La filosofía náhuatl*, México: UNAM.
- López Austin, Alfredo(1989), *Hombre-dios*, México: UNAM.
- Matos Moctezuma, Eduardo(1999a), *Estudios mexicanos 1*, México: El Colegio Nacional.

- _____(1999b), *Estudios mexicas* 2, México: El Colegio Nacional.
- Navarrete, Carlos; Heyden, Doris(1975), “La cara central de la Piedra del Sol. Una hipótesis”, *Estudios de cultura náhuatl*, 11, México: UNAM., pp.355-376.
- Navarrete Linares, Federico(1998), *La migración de los mexicas*, México: CONACULTA.
- Pasztory, Esther(1983), *Aztec art*, New York: Abrams.
- _____(1995), “El arte”, *Historia antigua de México III*, México: INAH., pp. 459-513.
- Rodríguez-Shadow, María(1996), “Xochiquetzal, una deidad hermafrodita del panteón mexica”, *Segundo y tercer coloquios de documentos pictográficos de tradición náhuatl*, México: INAH., pp.11-31.
- Sahagún, Bernardino de(1985),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 México: Porrúa.
- Santamarina Novillo, Carlos(2011), *El sistema de dominación azteca. El imperio tepaneca*,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 Solís, Felipe(2000), “La Piedra del Sol”, *Arqueología Mexicana*, núm. 41, pp.32-39.
- Tena, Rafael(ed.)(2004), *Anales de Tlatelolco*, México: Cien de México.
- Westheim, Paul(1991), *Ideas fundamentales del arte prehispánico en México*, México: Era.

이 종 득

덕성여대
 leejong@duksung.ac.kr

논문투고일: 2019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The aesthetics of the mexica art

Jongdeuk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Lee, Jongdeuk(2019), "The aesthetics of the mexica art",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75-1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of various art works of mexic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ncient documents and drawings temporarily produced from the second Audiencia era(1531-1535), as well as architectures and stone construction relics, have been compared with records of ancient documents and chronicle. Most of all, historical and political point of views have been highlighted more than the mythological and religious perspectives, which has been the mainstream of existing researches.

Art works of mexica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strategy of the new political power, which led the victory in the war with the alliance of Azcapotzalco(1428). The new political power, which was a descendant of an immigrant group, newly established mythological and religious legitimacies through distorting mythology and history. They also put a lot of efforts on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The traces of such acts can be found with various stone construction relics, including Templo Mayor, and ancient documents and drawings. Moreover, mexica's vision of universe, including the fifth solar myth, worked as inner principle for various art works to be created, and was established as an ideology for mythology, religion, and politics. Mexica's art works were faithfully reproduced and aroused of such inner value, and were developed in forms and methods of implying such characteristics.

Key words Tenochtitlán, Tolteca, Mexica art work, Aesthetics of mexica art